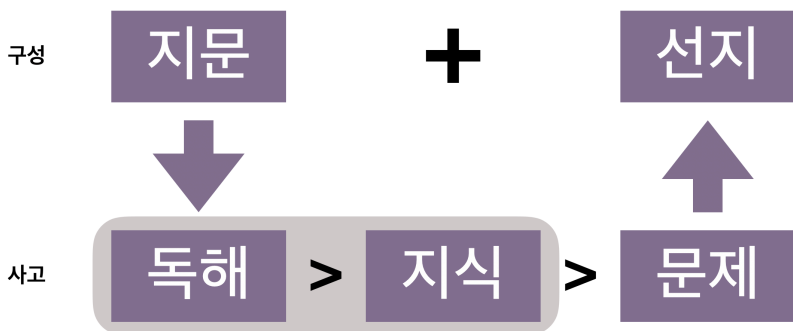


# 3장

## 지문 분석법

지문 안에 다 답이 있다.



3장, 지문 분석법

- ❖ 지문의 주제는 무엇인가?
- ❖ 1문단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 ❖ 1문단'만'보고 다른 지문 소재를 예상할 수 있을까?
- ❖ 각 단락의 주제는 무엇인가?
- ❖ 단락이 기존 내용과 어떤 연관된 내용을 갖고 넘어가는가?
- ❖ 단락간 어떤 내용이 연관이 있는가?
- ❖ 지문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 ❖ 지문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는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있는가?

지문 안에 다 답이 있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초 등학생이어도, 수능 문제 시간을 무제한으로 주고, 끈기만 있다면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개념어를 학습해야 하는 문학기량은 다르지만, 비문학에서만큼은 모든 답이 지문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한된 시간 안에 지식으로 처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문을 훨씬 체계적으로 본인의 지식으로 만들면 훨씬 수월하겠죠. 마치 두뇌에 '입금'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지문을 독해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인강 강사마다 저마다 다른 독해 방법이 있고, 강조하는 포인트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 어느 포인트도 무시하면 안됩니다. 위의 체크리스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 ❖ (문학) 작가가 제시하는 주제와 그의 정신은 무엇인가?
- ❖ (문학) 작가가 사용한 특이한 표현은 무엇인가?
- ❖ (문학) 등장하는 인물간의 관계와 개개인의 생각은 무엇인가?

물론, 문학은 다르겠죠. 문학지문에서 얻어가야 하는 것은, 바로 '주제'와 '표현'입니다. 문학은 모두 특정 '생각'을 갖고 창작한 작품입니다. 작가의 그 생각을 알아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표현'입니다. 생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주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에서는 각 문단에 대한 내용보다도, 저런 작가의 생각과 이념을 잘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가다, 지문을 읽다가 텍스트'만' 읽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앞 문단/문장과과의 상호작용을 생각하며 읽으면 어느정도 해결될 겁니다.



# 6장

## 지문-문제 유기성

쓸데없는 문장은 없다.



6장, 지문-문제 유기성

구성



사고



- ❖ 지문의 어느 부분이 문제로 출제되었는가?
- ❖ 각 선지의 근거를 반드시 찾아보기.
- ❖ 3, 4, 5장에서 체크한 내용을 이어서 체크해보기
- ❖ 거시적인 분석과, 미시적인 분석을 동시에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기

**\*비문학, 문학 공통**

지금까지 지문, 문제, 선지 분석방법을 이어서 ‘큰 그림’을 보는 단계입니다. 하나의 세트가 어떻게 짜여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평가원 기출은 허투루 쓰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선지에 대한 근거를 지문에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거시적인 시각으로 문단과 문제를 분석했고, 미시적인 시각으로 선지와 그 근거를 찾는 연습을 했습니다.

지문의 어느 내용이 문제로 출제되었는지, 정확히 어느 문장에 의해서 문제의 선지가 적절한지/적절하지 않은지를 체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선지의 근거가 되지 않는 문장은 왜 존재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느 문장은 정의를 보여줄 수도 있고, 어느 문장은 예시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문장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문장은 결국 선지의 근거가 됩니다.

지문과 문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평가원 지문으로 그런 패턴을 파악하며 배워야 하는 태도는, 어느 문장이 왜 쓰였는지를 처음 읽을때부터 파악하는 것입니다. 첫 독해에서 문장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가 문제와의 관계 역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첫 독해에서 잘 독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다시 돌아오는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종의 Plan B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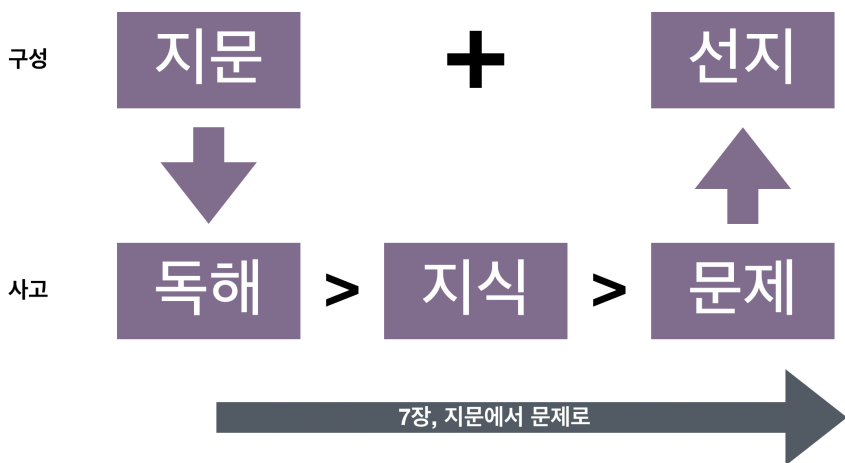
또한, 지문 독해에서 강-약을 나누어 읽으면 체력안배는 물론, 훨씬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고, 빠르게 읽을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을 묻는 지문-문제 유기성을 잘 파악한다면, 이런 부분도 이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 7장

## 지문에서 문제로

결국 문제도 지문으로 낸다



- ❖ 정확하게 어느 ‘표현’이 문제로 출제되는지를 파악하도록 하자.
- ❖ 그리고, 지문을 읽으며 문제를 ‘예상’하는 연습을 하자.
- ❖ 한번 동일 지문을 갖고, 스스로 문제를 출제하는 연습을 해 보자.

### \*비문학, 문학, 화작 공통

지금까지 해온 내용과 별 차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텍스트로 써져 있는 지문이나 문제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지문만 갖고 문제를 ‘예상’하는 연습을 해 봅시다.

비문학을 예시로 들어봅시다. 비문학에서 하나의 원리를 설명하는 순서(첫째, 둘째, 셋째...)가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대상의 원리를 묻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합니다. 이런 연습을 하면 나중에 지문을 읽으며 이 부분이 중요하고, 이 부분이 나올 것 같다는 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은 화법과 작문 문제에서 가장 높은 효율을 보입니다.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이뤄져있는 화법과 작문 문제에서는 뜬금없이 전문가가 나온다거나, 시각자료를 보여주는 등의 부분이 있는데, 이런 ‘표현’을 본다면, 말하기 방식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연습을 해도, 도저히 어떤 문제가 출제될 지 예상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남들보다 빠르게 ‘예상’하기 위해 하는 연습일 뿐이니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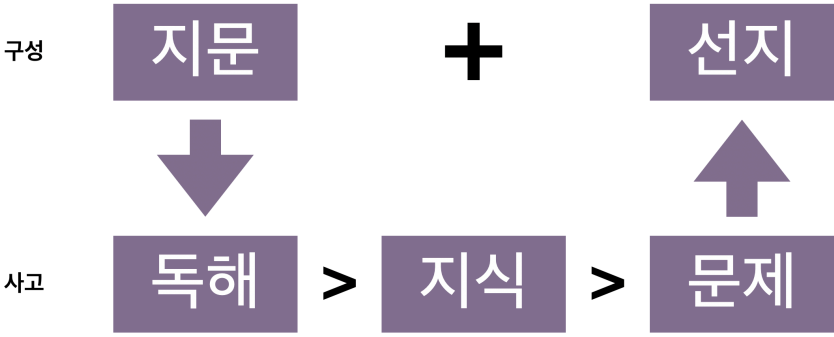
그런 분들은 한번 문제를 출제해보는 연습을 해 보세요. 더도 덜도 말고, 지문의 일부를 잡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내용일치나, 계산문제처럼 한번 문제를 출제해보세요. 결국 어떤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을지 예상하는 단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 8장

## 문제에서 지문으로

문제=지문 미리보기?



← 8장, 문제에서 지문으로

- ❖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을 읽어보기.
- ❖ 문제를 ‘정독’하지 말고, 훑어보는 정도로 끝내기
- ❖ 수동적인 찾아 읽기가 아닌, 능동적인 읽기로 읽기.

\*도무지 읽히지 않는 지문에 대해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에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장단점이 나뉘기 때문에, 읽히지 않는 지문에 대해서만 문제를 먼저 읽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우선, 문제를 먼저 읽는 방법의 장점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빠릅니다. 문제를 먼저 보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방법으로 흘러가는데, 다른 것 다 필요없이 해답만 찾으면 되므로 빠릅니다. 그 다음, 아무리 어려운 지문이라도 ‘읽을 수는 있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까지 몇번씩 반복되는 말이지만, 문제는 지문의 ‘핵심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먼저 본다면 그 핵심내용만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보고 읽으면 자칫하면 수동적인 읽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원은 능동적인 읽기를 지향하고, 수능에서도 그런 노력이 보입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하는 문제나, 오류에 대해 제시하는 지문 등이 그 예시입니다. 하나만이 아닌, 길게 지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은 맞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생소한 주제이기 때문에 도저히 읽히지 않는 지문이거나, 독해에 도움이 되는 ‘핵심 정보’만 체크하는 용도로 문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100% 의존하지만 말라는 뜻입니다.



Q. 기출문제는 언제 봐야하는건가요?

A. 기출문제는 거의 항상 봐야한다고 무방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므로, 적어도 평가원 시험을 보기 전(5월, 8월, 10월, 11월)하고, 공부를 시작할 때(3월)은 한번씩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충분하다고 생각된다면, 속도를 빠르게 해서라도 꾸준히 보시는게 중요합니다.

Q. 기출문제는 몇개년치를 봐야하는건가요?

A. 많이 볼 수록 좋지만, 문제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3개년도, 문제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7개년도를 추천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비문학이 너무 약해서 만약 평가원 지문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출 지문이나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Q. 첫 기출 분석도 모두가 하라는 대로(본 교재 처럼) 해야하나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A. 한번쯤은 이 전자책에 나온 대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독해를 잘 하는 사람도 있고, 문제를 잘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어느정도 넘겨가며 분석해도 상관없습니다. 실력이 있으면, 어디가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을 테니까요. 언제까지든 또 다른 문제입니다. 목표 점수보다 조금 더 높게, 목표 점수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때까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00점을 받기 위해서는 120점정도의 분량으로 공부해야하는 것 처럼요.

Q. 분석이랑 실전이랑 너무 달라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실전모의고사를 푼 다음에 한번 분석을 더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 실전에서 풀 때랑 다르게, 새롭게 추가되는 것들이 있을거예요. 이런 내용을 따로 체크하신 후, 다음 실전 풀이에서 의식적으로 같이 생각하면서 해 보세요. 한 두 세번?정도 반복하다보면, 분석의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Q. 기출분석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마음이 급한데 어떻게해야하나요?

A. 당연히 오래걸립니다. 수학도 처음 킬러를 풀 때에는 1시간도 넘게 걸리듯이요. 그렇지만 공부하며 고민하고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점수가 오를 수 있습니다. 기출분석을 할 때에는 제대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예시 1-2019 수능, 지문 분석법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한다.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다. 하지만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는 약속과는 다르다.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서로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성립(공)**하지만, / 이때의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차)**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 예로 매매 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이처럼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킨다.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 한다.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동산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다. /갑은 그림 A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 전액을 금전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림 A를 넘겨달라고 청구하여도 을은 인도해 주지 않았다.**(매도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불필요한 문장은 없다 - 돌려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 소개)**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 소송법이나 민사 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갖추어져 있다(Link)**. 갑은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서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강제 집행은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켜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일반적으로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을의 과실로 불이 나 그림 A가 타 없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다. 소송을 하더라도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은 나올 수 없다.**(특수한 경우)**//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이행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불필요한 문장은 없다 > Link /계약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냄새나는 문장 큼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지??)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 갑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때까지 유효했던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이때의 계약 해제는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한다.(제발 눈치좀 채라고!!-착한 평가원 사랑해요) 따라서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데에 을의 승낙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 행위를 단독 행위라 한다.

갑은 계약을 해제하였다. 이로써 그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것이 된다. 당연히 계약의 양 당사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왜? - 갑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으니까)&(Link 근데 멍청한 갑이 먼저 돈을 쥐 버렸잖아 그건 어떻게 해???)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원상회복 청구권이다. 계약의 해제로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 문장을 읽을 때, 다른 문장과 관련성을 계속 생각하며 진행해야 한다. 왜 이 문장을 썼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등 끊임없이 왜?를 묻는 연습을 해야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저자 정보



인서울 의과대학 재학 중  
수도권 과학고 졸업  
전 올림피아드 국가대표  
2020학년도 로테시리즈  
2021학년도 로테시리즈